

# [일본] 올해 10월부터 PFOA 및 그 염 제조, 수입, 사용 금지

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 (2021. 03. 04.)



일본은 퍼플루오로옥탄산(PFOA) 및/또는 그 염을 Class 1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올  
해 10월부터 제조, 수입, 사용을 금지한다.

- 일본은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 규제에 관한 법률(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)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PFOA 및/또는 그 염을 Class 1\*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제조, 수입, 사용을 금지한다.

\* 화학물질관리법(CLCCL,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)에 따른 Class 1 지정 화학물질은 일본이 잔류성, 고도의 생물 축적성, 인체에 장기적인 독성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화학물질이다.

- 제안된 채택일은 2021년 4월이며, 채택일로 부터 6개월 후인 2021년 10월부터 발효 예정이다.
- 법 제24조에 근거하여 PFOA 및/또는 그 염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품목을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한다.

- ① 방수지 및 내유지
- ② 발수성 원단 및 발유성 원단
- ③ 세정제
- ④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반사 방지제

- ⑤ 페인트 및 광택제
- ⑥ 발수 및 발유
- ⑦ 접착제 및 실링 필러
- ⑧ 소화기, 소화제 및 소화용품
- ⑨ 토너
- ⑩ 방수 의류 및 내유성 의류
- ⑪ 발수성 바닥재 및 발 유성 바닥재
- ⑫ 바닥 왁스
- ⑬ 인화지

